

국민 76.9% '공수처 설치 찬성'

리얼미터 조사결과... 연령별 30대에서 89.3% · 정당별 민주당이 91.7%... 보수층에서도 반 이상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9일 ts 의뢰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8.3%·찬성하는 편 28.6%) 응답이 76.9%로 나타났다. 10일 밝혔다. 반대(매우 반대 10.5%·반대하는 편 5.1%) 응답 15.6%보다 약 5배 높은 수치다. 모름·무응답은 7.5%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6년과 2017년 조사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 말 실시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68.7%(반대 21.5%)로 집계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

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특히 30대에서는 찬성이 89.3%로 반대(7%)를 큰 차이로 압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찬성이 91.7%, 89.7%를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찬 62.8%·반 28.5%)과 바른미래당(찬 60.4%·반 28.9%)도 찬성이 60% 이상을 넘겼다.

보수층은 71.9%, 대구·경북은 73.3%, 60대 이상은 71%로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 및 세대에서도

공수처 신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77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 이다. /뉴시스



한도연 경무과장 최규연 보인과장 함현배 112실장 정재봉 여청과장 이상주 수사과장



이후신 형사과장 김태형 경비과장 남기재 덕진서장 박현수 익산서장 신일섭 정읍서장



송호림 원주서장 박정환 고창서장 이서영 순창서장 이연재 진안서장 박정원 장수서장

전북경찰청, 총경 전보인사 단행... 총 15명

전북경찰청이 10일 총경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총경 전보인사는 한도연 경무과장 등 총 15명이다.

총경 전보인사는 다음과 같다.

▲경무과장 한도연 ▲보인과장 최규연 ▲112종합상황실장 함현배 ▲여성청소년과장 정재봉 ▲수사과장 이상주 ▲형사과장 이후신 ▲경비교통과장 김태형 ▲전주덕진서장 남기재 ▲익산서장 박현수 ▲정읍서장 신일섭 ▲원주서장 송호림 ▲고창서장 박정환 ▲순창서장 이서영 ▲진안서장 이연재 ▲장수서장 박정원 /강석훈 기자



전북여성 미래 100년 1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전북여성 신년하례회에 송하진도지사와 김광수 국회의원, 송성환 도의장, 임양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하례액 커팅을 하고 있다.

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가동

전북도는 자연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접투자사업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우수저류시설설치, 소하천 정비 등 5개 분야 124개소에 1,652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이다.

도는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16개반 12명의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10일 도·시군 조기추진단 팀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재해예방사업 방향을 제시했으며, 시군은 사업 조기추진계획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의 조기추진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전라북도의 의지가 담긴 조기추진단은 사업장별 추진상황 관리 및 회의개최,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기에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1월중 신규지구에 대한 현장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2월말까지 전체 사업의 90% 조기발주, 6월말까지 60%이상 주요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예산 조기 투자 및 조기추진단 운영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차단해 '자연재난에 강한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

21~31일 개인구매시 10%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영태 기자

2018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전주시는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전주시에서 등록된 대부업체 91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등으로, 대상 대부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 법정이율 초과(24%) 등의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기초연금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도, 소득인정액 월 1313~137만원 어르신 새 수급 대상

전북도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 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8천여명)의 기초연금은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 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31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

인의 소득 재산 분포 및 임금, 자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중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4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소득 재산 평가 등 지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